

제 142 호

연중 제 20주일

1975. 8. 17.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강 론□



엑 소 시 스트

정 승 현 신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안다. 오늘 복음을 읽고나니 이 영화가 생각난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기 딸을 낫게하고자 어머니는 신부님에게 부탁을 한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인 데미안 신부님은 먼저 철저하게 정신병리적인 조사를 해본다. 틀림없이 그 여자아이의 병은 정신병리학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마침내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구마예식(驅魔禮式)을 하게 된다.

구마예식은 합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구마예식을 행한다면 그것은 미신이거나 무당의 푸닥거리가 될 것이다. 여자아이의 구마예식을 위해서 노련한 사제 한분이 파견되고 데미안 신부님은 보조(복사) 사제가 된다. 두 사제는 악마가 매도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구마예식을 계속한다. 노 사제는 데미안 신부에게 부탁한다. 악마가 어떠한 거짓말로 신부를 미혹해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악마는 버라벨 악담으로 두 신부를 거꾸러뜨리려 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두 사제가 다 죽게 된다. 노 사제는 기력이 꺾여서 죽은 것 같지만 젊은 데미안 신부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퍼부은 악마의 악담에 걸려넘어져 죽음을 당한것 같다. 결국 두 사람의 신부가 죽게 되고 그 여자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악의 세력에 대한 신앙인들의 투쟁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것일까? 아니면 현대의 물질과학보다도 종교의 힘이 우세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일까?

작품에서는 그 여자아이가 구마예식으로 완쾌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두 신부의 죽음 후에 어린아이가 완쾌되었다는 사실이다. 확실히 신앙인에게는 악마를 추방해야 할 사명이 있다. 악마는 의인화(擬人化)한 세상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죄가 아무리 크게 기승을 부린다해도, 어떠한 속인 수나 헛된 이론으로 넘어뜨리려 발악한다해도 신앙인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온통 바쳐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인 것이다.

이방인 여자가 마귀 들린 자기 딸을 예수께 부탁해서 낫게 되었다는 기적 이야기를 읽고 비슷한 이야기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생각해 왔다.

이렇게 혼란된 세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신이나 광신이 아닌 건강한 신앙이 아닐까? 그리스도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대라고 생각한다

(정승 천주교 주임신부)

이 주일의 미사

(1) 개회식

□임당송 보소서, 우리 방패, 하느님이여 당신께 축성된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실로 당신의 켈내라던 천난보다 더 나은 하루 되나이다.

(2) 말씀의전례

□제1독서 (이사야 56 : 1. 6-7)

이방의 아들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리라.

□증계송 ◎창생이 하느님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만민이 당신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를 여여배 여기소서/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당신의 도가 세상에 알려지고/만백성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

□제2독서 (로마서 11 : 13-15, 29-32 성서 p 399)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거두어 가지지 않는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들의 온갖 병을 다 고치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5 : 21-28 성서 p 123)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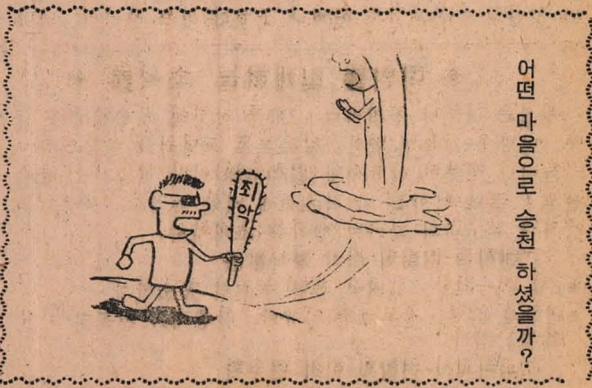
□신자들의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길 잃은 양을 위하여 성자를 파견하신 주여, 성자로부터 다시 파견 받은 교회로 하여금 길 잃고 헤메는 무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의면하는 무력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새학기를 맞이하게 될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방학동안 심신의 피로를 회복한 그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학우들과 생활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3. 죽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들이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남아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사되어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3) 성찬의 전례 □불헌 □성찬식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나이다.

숲 정 이 산책



□기간의 생경은 존엄하다□

불임시술(不妊施術)에 대한 우리의 견해(見解)

이 글은 최근 보사부 당국이 충남 보령의 정심원 교아 9명에 대하여 그들이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 이들에게 모자 보건법(母子保健法)을 적용, 불임시술을 강제적으로 명령코자 한데 반 대하여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1. 모자보건법은 잘못 운용되고 있다.

오늘날 소위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자 보건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모자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듯 하지만, 실상은 미래의 생명을 제한하려는 생각의 소산이고, 따라서 이것은 윤리적으로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생명 현상을 침해할 뿐 아니라, 철저히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데서 우리는 그 법제화를 적극 반대했던 일이 있다. 지금 해마다 백만에 가까운 인공 임신 중절이 이 법의 보호를 받고있는 실정이지만, 이로 인한 생명 경시 풍조와 성도덕의 타락을 우려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

2. 어떤 우생학적 목적으로도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불건전한 종족을 도태시키고 건전한 종족만을 번식 시켜야 한다는 우생학적 목적은, 인간성에 따라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 예컨대 사람이 자기 자기의 신체 어느 부분도 완전하게 보전할 권리,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보다 결코 우위에 서지 못한다.

이 세상에는 마땅히 우수한 자와 열등한 자가 함께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반드시 우수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데 그 근거가 있으며, 인류를 움직여온 힘은 전적으로 편의적이거나 유용하기만한 권력이 아니고 차라리 깊은 도덕률이기 때문이다.

무능하고 불쌍한 사람을 간호하고 돌보는 일은 곧 인류애의 기본이며, 이 인류애는 생명현상의 외면이 아니라 존중에 있는 것이다. 만일 생활력만으로 인간의 가치를 따진다면 이 세상에는 사랑을 위한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며,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의 존재 의의도, 가치도 부정당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 필요성이 곧 사람과 사람을 연결지우는 것이다.

3. 우생학적 수단으로서의 단종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비과학적이다.

현대의학은 병리적 현상에 대한 유전인자의 관여에 대해서 절박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상태일 뿐 아니라, 건강과 질병의 구분조차도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유전성 질환도 그것이, 반드시 유전되는 것도 아니며, 또 그중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도 적지가 않다.

그러므로 잠재 소질과 그 출현에 관한 확률론적 지식만으로 단종을 명령하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 일뿐 아니라, 엄연한 인권침해로서 부도덕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다.

실상 불임수술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 예컨대 스칸디나비아 제국과 일본 및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이같은 단종이 우생학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성문제, 마약 중독 등 각종 사회문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높고 있는 실정이다.

도덕질한 소질이 있다고 해서 그 예방을 위해 손을 잘라도 좋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4. 불행에 대한 보호와 계몽교육만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제력으로 간섭한다는 것은 사람이 오직 현세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영원의 생명을 가졌다든 점을 인정치 않는 태도이다.

이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불구는 영원한 행복을 얻기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높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때문이다. 이들이 반드시 사회발전에 부정적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하여 현사회로 부터 도태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조금도 없다.

원래 인류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악, 예컨대 전쟁, 기근, 천재지변 등에 대한 꾸준한 투쟁으로 이어져 왔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와 존엄, 생명의 경의,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수호하려는 정신이 무엇보다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 누구의 생명과 신체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확률적인 계산하에 창도되는 단종은 인간경시의 한 표본이며 위험한 책임 회피이다.

이들의 불행을 적극적으로 돕고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한 계몽교육만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1975년 7월 3일

한국 가톨릭 병원 협회 회장	김창렬 신부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회장	정일천
한국 행복한 가정 운동 협의회 회장	조규상

◆ 더위를 잊게하는 소식들 ◆

계절은 너무나 정적하다. 하루 아침에 시원해지던 입추, 팔방울이 돌던 말복. 앞으로는 늦더위가 있다는데... 그러나 옛부터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 했던가! 열은 열로! 굶년 더위를 그리스도께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겨낼 교구내의 몇가지 행사를 소개한다.

□대학생 연합회 하기 불사활동

* 7월 26-31일, 신태인 본당 능교리 공소에서
* 대학생 22명, 지도교수(이규하, 이홍재), 지도신부(김환철) 참가

□교리교사 연합회 하기 연수회

* 7월 28-31일, 신태인 본당 능교리 공소에서
* 21개 본당 교리교사 80명, 지도신부(김종길) 참가

□고등학생 공동체 목상회

* 7월 31일-8월 2일, 가톨릭센터에서
* 대전 대흥동 본당 학생 29명, 성심여교 종교부 18명, 장제본당 학생 2명 참가

□프로레즈 신부가 지도한 목상회 내용 번역

* 8월 11일-17일, 가톨릭센터에서
* 번역-이상용, 천진, 조성호, 박춘근. 정리-한상강
※주교님도 이들을 찾아서 격려하시고
※본당은 본당 나름대로 연수회의 꽃이 피어 시원

□양지쪽□

기본점수

-안되는 줄 알면서 왜그랬을까?-

한 상 갑

시험때가 되면 학생들은 곧잘 점수때문에 흥정(?)을 벌인다. "선생님, 기본 점수는 몇점입니까?" <기본 점수>라는 말이 풍기는 맛이 꽤 재미있기까지 하다.

서울을 연이틀 다녀올 기회가 있어 고속버스를 이용해보았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차표를 사고도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걸렸다. 기다리는 시간에 고학생도 만나게 되고 여려지가 흥미거리들도 보게 되는데, 그중에도 버스회사의 안내 방송이 꽤 이채롭다.

"○○행 ○시 ○분 발차 승객 여러분께 잠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 ○시 ○분 발차는 차내 정비 관계상 운행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내 정비가 끝나는데로 승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매우 고맙게까지 느껴졌다. 친절하게 여겨져서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1시간 동안에 그런 방송이 너무 자주 나오는데서 부터이다. ○○행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행도 그렇다.

그래서 둘째날은 오후 5시 50분 표를 사놓고, 기다리기도 지루해서, 내뺄에는 재미있는 일에 착수했다. 시간을 재 본 것이다.

- 5시 49분.....전주에서 떠난 버스 도착.
- 5시 54분.....버스 앞쪽 유리 청소.
- 51분.....제1차 사과 방송.
- 57분.....제2차 사과 방송.
- 53분.....승객이 모두 내리자, 소독하는 사람이 승차해서 소독. 버스열에 붙어있는 회사 표지 닦기.
- 6시 2분.....승차 시작.
- 7분.....버스 출발.

결국 17분이 지연되었다."겨우 17분 가지고 무슨 말이 그리도 많으나?" "할일도 되게 없나보다"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1시간을 기다리며 너무나 많이, 아니 거의 빈번히, 그꼴을 보자니 할 말이 없을 수만은 없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너무나 만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성질 급한 사람은 몇번 투덜거리고, 양순한 시민은 소처럼 눈만 껌거리고 만다. 그러다 보니, 급행로 덕분에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당신도 재수가 더럽게 없습니까"라고 만다.

자, 이 버스에 주어야 할 기본 점수는 얼마인가?
당신의 기본 점수는 얼마나 후한가?

요심이 (108) 김병오

부모님은 어린이를 주원학교에 보내시요

한명도 안 오는 구나
수녀님 제가 모이게해보지요

교리는 가르치지 않고 과외수업만 하여 외인자식을 만들어 줍니다

와 우리엄마가 빨리가라고 하셨단다

◆직원 모집 공고◆

1. 모집인원
임시직 남녀 약간명
2. 자격
(1) 병역을 필한 21세이상 30세 미만의 남자
(2)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녀
(3)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3. 제출서류 및 제출마감
제출서류는 조합에 문의하고 마감은 1975년 8월23일 까지
4. 기타
채용후 지도자 교육 수료와 동시 정식 임명하며, 절차등 상세한 내용은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람
1975년 8월13일
전주 중앙신용 협동 조합
전화 ② 9195

현대 광고사

*아크릴. 각종판권. 아취. 셀코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 카메라수리

송 홍 섭 (토마스)

전화 ② 9431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베거리 중간

◆드레스 미싱 대리점◆

삼영미싱상회

<미싱일체>

◎ 배인상회 앞

전화 ② 2827

최 경 자 (테레사)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 (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②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태 (베드로)

◎육교빌 중앙 시장통

(전화 ②4577)

※집단지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③0876 김 테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교구 예산 편성을 위한 참사회 신부와 평신도 합동 회의 (18일 <월>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각 본당 사도회장 교구 각 분과위원장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신·구교 합동으로 갖는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18일 <월> 오전 11시, 가톨릭센터) 많은 교우들, 특히 젊은이의 참여를 바람
 3.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총장 구베로 신부가 지도하는 목상회 (21-29일, 서울 분도회관) 김종택, 범석규 신부, 김수녀, 천건, 조성호, 한상갑씨 참가
 4. 전주교구 중·고등 연합회 임원회의 (8월 19일 오후 3시부터 가톨릭센터에서) <안전> 사업 계획 심의. 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 *문정현 바르톨로메오 신부 영명 축일 (8월 24일)
무릎 수술로 성모병원 병상에 축일을 맞는 신부님의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중양)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김영진

1. 성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교회 회계 년도가 곧 막아 옵니다 1975년도 미납된 교무금을 속히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꼬미씨움: 1시30분 (전등에서)
2.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모든 조합원들은 빠짐없이 참석 합시다
◎성미: 1말 6되, 누계: 179.4되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9월 새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각 부장은 예산안을 8월 말까지
3.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중양: 15,000원 <노송>고혜자: 10,000원
왕정공소: 15,000원 김삼상: 2,000원
기타: 2,000원 누계: 44,000원 누계: 3,940,527원
◎ 신축성미: 1말 누계: 227.1되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중·고생 미사: <토>오후 6시, (교리) 7시
2. 상관 하계 특별 교리: 17일부터
3. 상관 주보 침례: 8월 22일
<미사>오전 9시 <미사후> 아동 교리 시험 시상 및 어른들의 본당 주보 축하회 있음.
4. 9월 공동체 목상회에 많은 참석을 합시다
5. 각 부 예산을 8월 말까지 사무장에게 제출요.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중환

1. 어린이 첫 영성체: 오늘 공식 미사시
2. 레지오 마리에 회원 모집
누구든지 가입하여 성모님의 착한 자녀로써 행복하게 생활합시다
3. 사도회 각부 신년도 예산안 제출 요망
4. 교무금을 납입합시다.
5. 노송동 성당 신축 신입금을 속히 납부 합시다

(전등)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봉섭
사도 회장 이현재

1. 꼬미씨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중·고생 J.O.C 체육대회
※ 성당 대리 신청자
황희상, 황인구: 각삼만원. 송은순: 삼천원
김용옥: 이만원. 이상태, 이영희, 정갑택: 오천원
자모회: 십만원. 정만성, 방춘원, 김병오, 김영철
소선순: 만원. 강정순: 천원. 중·고생 하기 교리
마치고: 오천원
계: 254,000원 누계: 1,613,880원.
3. 주일학생 하기 방학 교리 수료식: 오늘 오후 5시 미사후
※대건 신용 조합 직원 모집공고 ※전화 ② 4530
남자 30세 여자 20세 미만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
자 각 약간명 (자세한 사항은 조합에 문의)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김부수 신부 창제안부인 성모회 월례회	신심 단체 우의 행사	4,345원	제 3 지구	주현동동 창인동동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40,075원
		성모회 월례회	13,120원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	41,575원
제 2 지구	대운동동 월명동동 합동연	박성운 신부님 일일 본당 신부님	5,709원	제 4 지구	중양동 노송동 덕진동 서학동	성모회 월례회	53,795원
		젊은이들 일일 목상회	24,245원			애령회 간부 월례회	30,115원
제 3 지구	고금여 산산산	전례 위원회 월례회	22,355원	제 5 지구	남원동 원주동 장계안	어린이 첫 영성체	8,846원
		성심회	13,625원			꼬미씨움 회합	17,630원
		하계 교리 무사히 마칠	19,300원			각부 예산서 8월 말까지 제출 요망	18,410원
		중학생 교리반 야외 세미나	2,815원			중·고생 J.O.C 체육대회	48,810원
		신우회 성우회 월례회	10,980원			청년회 지리산 등반	13,370원
		청년회	3,825원			교무금을 납부 합시다	5,700원